

##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 반영을 중심으로 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분석

조 규 성	정 덕 호	박 경 진	김 희 진	박 선 옥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재교육 담당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연수 프로그램이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각 지역 교육청, 대학 부설 연수원과 원격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재교육 관련 20개의 연수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해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에 관한 프레임을 선정하였고, 이 자료를 토대로 연수 프로그램을 강의별로 코딩하여 정제한 뒤 분류 작업을 거쳐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교수법’, ‘교육과정 개발’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많은 교사연수프로그램이 정외적 자질보다 전문성 및 교수능력 자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균형 있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교사의 자질을 균등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주제어: 연수 프로그램, 교사의 자질, 언어네트워크분석

### I. 서 론

교육이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교사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서 학생의 인간적인 성장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또는 ‘학교 교육의 성패는 교사에게 달려있다’ 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4가지 주요 요인을 교사, 학생,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이라고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요인을 교사로 보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자질은 학생의 지적, 사회·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사의 태도와 기술 및 행동을 의미한다(소경희, 2003). 이는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자질 역시 영재 학생을 가르치

교신저자: 박선옥(giftedpark@jbnu.ac.kr)

는 데에 있어서 요구되는 태도와 기술,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Landrum(2001)은 뛰어난 영재 담당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급에서 뛰어난 교사가 되어야 하나, 뛰어난 학급 교사가 뛰어난 영재 담당교사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영재아를 교육하는 담당교사에게는 일반학생일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영재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자질이 요구된다(장영숙과 강경석, 1999).

영재교육은 학생들의 뛰어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교육 기회를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도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지닌다(조석희 외, 1996). 이를 위해 담당 교사는 영재 학생들에게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준 높은 영재교육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같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지도했다라도 학생에 따라 학습효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교사이다(김홍원 외, 2000). 또한 정우현(1977)은 교사를 통해 모든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영재교육의 질 역시 담당 교사의 자질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영재 학생들은 그들의 높은 감수성으로 인해 일반 학생들보다 교사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다(Croft, 2003). 그러므로 의미 있고 성공적인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재교육 담당교사가 영재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할 수 있는 특별한 자질과 특성이 요구된다(장영숙과 강경석, 1999).

이렇게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이 영재교육의 효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김홍원 외, 2000). 현재 우리나라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양성은 현직 연수과정(정교사가 된 이후의 연수과정, 직무연수, 특별연수 등)을 통한 교원 양성과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한 교원 양성으로 나뉘어져 있다. 2013년 3월 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임용기준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위의 임용기준과 함께 관련 분야 학위취득자와 특수한 능력보유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교육과정을 통한 자율 연수와 직무연수 과정을 통해 영재교육 담당교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고, 영재교육 현장에 임하게 된다(김미숙 외, 2010).

국내외에서 시행된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과 특성에 관한 연구들(김홍원 외, 2000; 박경희와 서혜애, 2007; 이윤옥, 김현철, 이정규, 2007)을 살펴보면 주로 영재교육을 명시적이고 학문적인 이론에 바탕을 두고 바라본 관점에서 수행된 것들이다. 이윤옥 외(2007)는 영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서 분야별 담당 교원을 선발하고 동 교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문제가 중요한 현안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드물게 수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권치순과 이혜란(2012)은 연수 분야와 연수 수준을 다양화하여 그 전문성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 제 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7)의 영재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권장기준을

살펴보면, 영재교육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철학과 사명의식, 전문적 자질과 식견뿐만 아니라 인성적 자질을 갖춘 교원이 담당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조석희 외(1996)는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양성과 임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교사들의 열정과 창의성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통해 영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학습과 관련된 전문적 자질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인성적 자질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 이신동 외(2009)는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일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더 높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더 높은 열정, 자신감과 창의성, 학생의 독특한 반응을 수용하고 인내할 수 있는 자질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영재 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 중에서도 특히 정의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의적인 자질의 경우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사의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의 정의적 자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연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재교육 담당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연수 프로그램이 영재 담당교사의 자질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재교육 담당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강의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재교육 담당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을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 담당교사 연수 프로그램(이하 연수 프로그램)이 영재교육 담당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문헌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과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고 20개의 연수 프로그램을 수집하였다. 이후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에 관한 프레임을 선정하였고, 이 자료를 토대로 연수 프로그램을 강의별로 코딩하여 정제한 뒤 분류 작업을 거쳐 분석하였다.

### 2.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연수 프로그램이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을 충분히 반영하여 연수의 내용을 구성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지역 교육청, 대학 부설 연수원과 원격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재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 장학사에게 문의하여 11개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을 수집하였다. 그 중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

이 4개,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이 7개였다. 또한 원격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4군데의 원격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9개의 영재 연수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을 각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였다. 총 20개의 연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으며 그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기관	연수 프로그램
교육청	4
대학부설 연수원	7
원격연수원	9
총계	20

### 3. 자료 분석 및 처리

#### 가. 프레임

연수 프로그램이 영재담당 교사의 자질을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영재담당 교사의 자질로 분류할 프레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영재담당 교사의 자질에 관한 프레임을 <표 2>와 같이 선정하였다. 대범주는 자질과 기관, 시간, 분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김현철 외(2005)는 Feldhusen(1994)과 Chan(2001)이 사용한 측정 도구를 연구 목적에 맞도록 적절한 문항으로 재구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에 대하여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자질을 인지적, 정의적, 전문성, 교수 능력 자질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4가지의 영재교육 담당교사 자질과 관련하여 영재교육 전공교수와 영재교육 담당연구원들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으며, 또한 영재교육 담당교사 5명과의 회의를 통해 교사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내용으로 수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 타당도 검증 받은 영재 담당교사의 자질의 분류 기준을 대범주의 ‘자질’로 사용하고자 한다. 대범주의 ‘기관’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 2조 연수 기관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영재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을 교육청과 대학 부설 연수원, 원격 연수원으로 나누어 프레임을 구성하였다. ‘시간’은 15시간당 1학점으로 인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제 42조를 기준으로 삼아 15시간, 30시간, 45시간, 60시간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야’는 박성익 외(2003)가 수학, 과학, 언어, 정보, 예술로 나누어 제시한 분야별 영재교육의 기준에 더불어 분야별 내용이 아닌 전반적인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공통과정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프레임은 영재교육 전문가 2인과의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각각에 프레임 코드를 넣어 프레임을 완성하였다.

<표 2>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에 관한 프레임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코딩어
자 질	인지적 자질	고등사고력	Ca
		문제해결력	Cb
		보통이상의 지능	Cc
		창의적 사고력	Cd
	정의적 자질	개혁성, 개방성	Ea
		실험능력	Eb
		정서적 안정감	Ec
		지적 호기심 및 평생학습자세	Ed
		영재프로그램 개발 열정	Ee
		유머감각	Ef
		성취 욕구	Eg
		영재아를 좋아하고 배려	Eh
		헌신 및 책임감	Ei
		공정성	Ej
	대인관계 능력 및 상호작용 기술	Ek	
	리더십	El	
	전문성 자질	영재의 발달특성 지식	Pa
		전공분야 영재프로그램 지식	Pb
		영재교육법 및 정책	Pc
		영재의 생활지도와 진로지도	Pd
전공분야의 영재관별 방법 및 절차		Pe	
영재 교육과정의 설계 및 개발능력		Pf	
영재교육 평가능력		Pg	
전공영역 학문탐구방법		Ph	
영재교육 최근 동향 및 추이 이해		Pi	
영재교육분야 관련 정보 습득 방법		Pj	
국가 자격증 소지	Pk		
영재교육 전문적 관계 및 위원회 참여	Pl		
교사연수 정보	Pm		
교수능력 자질	수업설계 능력 및 기술	Ta	
	교육공학적 수업방법 개발능력	Tb	
	영재특성 고려한 교육자원 활용능력	Tc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증진 수업능력	Td	
	동기유발전략	Te	
	자기주도 학습능력	Tf	
	학습자를 위한 연구수행촉진 기술	Tg	
	교육청	Mi	
기 관	대학 부설	Un	
	원격연수원	On	
성 격	시 간	15시간	Ha
		30시간	Hb
		45시간	Hc
		60시간	Hd
분 야	공통	Ge	
	수학	Ma	
	과학	Sc	
	언어	Ko	
	정보	It	
	예술	Ar	

### 나. 자료 처리

본 연구는 연수 프로그램이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을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언어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연수 프로그램을 프레임에 맞춰 분류한 후 어떤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자료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프레임에 의한 분류 작업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반복적인 자료 처리 기간 동안 각 분류 기준과 관련된 연구 사례를 통하여 영재교육 담당교사 자질의 분류 기준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2차 분류 결과와 1차 분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내용은 연구자가 참고문헌에 근거하여 분류하였으며, 3차 분류 결과와 2차 분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내용은 본 연구자와 영재학급 담당교사 및 영재교육 전공 박사과정 3인의 합의를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분류된 연수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영재교육 전문가 2인에게 타당도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연수 프로그램의 강의명은 한국어 기반 대용량 언어 분석 프로그램인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수집한 영재 연수 프로그램의 강의명의 조사를 삭제하여 명사만 남기고 의미를 갖지 않는 모든 단어들을 제거하는 정제(cleaning)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Krkwi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어 출현 빈도를 추출하였다. 그 다음 사회 네트워크 전문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 6 for windows를 활용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빈도(frequency)와 위세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을 도출해 냈다. 또한 Ucinet 6 for windows의 NetDraw라는 네트워크 시각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수 프로그램 강의명에서 사용된 단어들의 구조를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네트워크에 나타난 단어의 위치를 통해 연수 프로그램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이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을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에 대한 프레임을 선정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의 강의를 프레임에 맞추어 코딩작업을 진행한 후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였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 강의명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Ucinet 6 for windows를 활용하여 프레임 영역에 대한 빈도(frequency)와 위세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을 도출했다. 그리고 네트워크 시각화 프로그램인 NetDraw를 사용하여 연수 프로그램에서 반영한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들의 구조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 1. 영재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언어 분석

연수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언어네트워크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krkwi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수프로그램의 강

의미를 분석한 결과, 총 단어의 수는 195개였다. 이들 중 핵심단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위세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을 분석하였고, 아이젠벨류 값이 1이상으로 나온 단어 51개를 다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표 3> 연수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단어의 빈도와 중심성

단어	빈도	위세중심성	단어	빈도	위세중심성
교육과정	34	27.126	적용	6	0.326
판별	34	7.908	현황	6	1.069
개발	29	42.906	계발	5	1.361
창의성	28	11.261	관점	5	1.316
특성	27	9.275	뇌	5	0
교수학습	25	77.812	분석	5	5.764
프로그램	25	38.855	사고	5	3.099
수학	23	88.961	사례	5	1.116
운영	21	14.294	예술	5	11.36
과학	17	29.258	이해	5	2.392
선발	17	10.698	STEAM	4	2.601
평가	17	3.912	문제	4	1.328
정의	13	3.709	방법	4	0.853
리더십	12	3.117	사회	4	0.439
개념	11	2.236	소외	4	0.526
상답	10	0.131	역할	4	2.647
이론	10	4.113	유형	4	0.815
미성취	9	5.2	의미	4	0.023
동향	8	1.4	전략	4	0.125
관찰추천	7	3.198	정서	4	0.553
도구	7	5.243	차별화	4	1.68
부모	7	0.269	개선	3	2.784
지능	7	7.279	교사	3	1.295
지도	7	8.994	다문화	3	0.092
특수	7	1.468	담당교원	3	2.59
해의	7	3.285			

연수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frequency)를 살펴보면<표 3>, ‘교육과정’과 ‘판별’이 34회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개발’(29회), ‘창의성’(28회), ‘특성’(27회), ‘교수학습’(25회), ‘프로그램’(25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어의 위세 중심성을 살펴보면 ‘수학’(88.961), ‘교수학습’(77.812)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개발’(42.906), ‘프로그램’(38.855), ‘과학’(29.258), ‘교육과정’(27.12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연수 프로그램들이 교육과정 및 판별과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수·학습과 관련된 내용,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 위주의 강의가 연수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수·학습과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 등의 단어의 위세가 높다는 것은 연수 프로그램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수학’(23회), ‘과학’(17회)은 ‘교육과정’, ‘판별’과 같은 단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이나, 위세 중심성은 높은 값을 보인다. 위세 중심성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학과 과학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교육과정 및 개발, 판별 등의 단어와 연결되어 있으며 관련 연수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G교육청의 경우 수학영재교육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을 영재연수 초급과정 대체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어 ‘수학’의 위세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예술’(5회)은 11.360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위세를 보인다. 또한 예술 외의 다른 영역인 언어와 정보는 아이겐밸류 값이 1미만으로 분석에서 제외될 정도의 낮은 빈도와 위세 중심성을 지녔다. 이는 수학과 과학 분야의 많은 연수에 비하여 예술 관련 연수의 수가 적으며, 다양한 분야의 연수가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영재교육의 수요가 지나치게 수학과 과학으로 편중되어 있고 언어나 예체능 등의 교과 연수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무연수의 과목이 다양하고 균형 있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낮은 빈도를 나타내는 ‘미성취’(9회, 중심성 5.2), ‘특수’(7회, 중심성 1.468), ‘소외’(4회, 중심성 0.526), ‘다문화’(3회, 중심성 0.092)는 위세중심성도 낮게 나타난다. 영재교육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 12조에는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도서·벽지 거주와 같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자를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제시함으로써 교육적 소외계층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다양한 문화 안에서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영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Baldwin, 2008). 이러한 정책과 소외 계층 교육의 중요성에 비하여 미성취영재, 특수영재, 소외영재, 다문화영재와 관련된 연수 프로그램의 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10회, 중심성 0.131)은 학생의 내면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룬다. 또한 영재들은 지적 능력이 그 외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성장과 다르게 먼저 발달하는 비동시성 발달을 겪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정서적·사회적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ilverman, 1993). 하지만 낮은 빈도와 위세중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연수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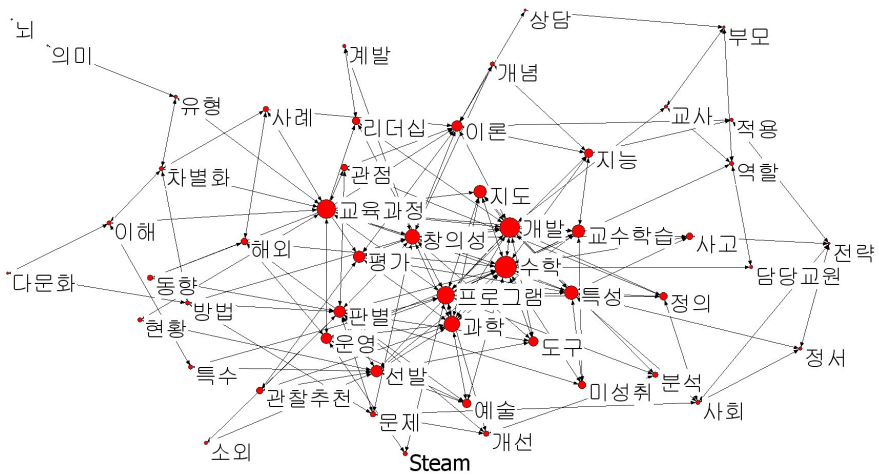
‘부모’(7회, 0.269)도 ‘상담’과 마찬가지로 낮은 빈도와 위세 중심성을 보인다. 특히 영재아 지도에 있어 부모교육이 요구되며, 부모의 태도가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김종선, 2008)는 측면에서 볼 때 부모는 영재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수 프로그램에서 강조되는 영역이 아니며 적은 수의 강의가 실시되고 있다.

연수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강의명에 대한 위세 중심성을 시각화한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개발’, ‘교육과정’, ‘프로그램’, ‘수학’을 중심으로 한 언어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위세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각 개념의 연결을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단어는 ‘창의성’, ‘지도’, ‘평가’와 같은 단어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네트워크 구조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앞서 논의한 것처럼 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단어들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뇌’, ‘다문화’, ‘소외’, ‘상당’과 같은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에 비하여 네트워크 지도의 중심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개발’, ‘교육과정’,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들이 연수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인데 반해 ‘뇌’, ‘다문화’, ‘소외’, ‘상당’과 같은 내용들은 많이 다루지 않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연수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강의들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며 영재교육 담당교사에게 전문적인 영역만을 강조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사들의 영재 수업에 있어서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과 판별도구에 대한 요구가 높아 연수 기관에서 이를 반영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 연수 프로그램의 언어 네트워크

## 2.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프레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연수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연수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앞서 제시한 영재교육 담당교사 자질에 관한 프레임을 이용하여 연수 프로그램의 강의들을 하위 범주로 분류하고 이들 사이의 의미론적 연관성에 대하여 네트워크 지도로 시각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4> 연수 프로그램의 하위 범주에 대한 빈도와 중심성

프레임 코드	빈도	위세중심성	프레임 코드	빈도	위세중심성
Ge	353	81.614	Pg	17	5.315
Hd	246	61.923	Sc	15	3.04
On	229	63.024	Hc	10	2.936
Hb	143	42.906	Ha	8	1.866
Un	103	29.299	Ar	5	1.254
Mi	75	21.946	Tc	5	1.798
Pe	66	23.025	Ko	4	0.853
Pa	61	22.414	Tb	4	1.408
Pf	58	19.855	Pc	3	1.024
Pb	48	16.357	Ek	2	0.663
Ta	45	14.116	It	2	0.503
Pd	35	11.576	Pj	2	0.677
Pi	32	11.673	Ph	1	0.189
Ma	28	7.047	Pm	1	0.346
Td	27	8.882			

<표 4>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재 교사 자질의 하위 범주에 대한 사용빈도와 위세 중심성 중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별로 살펴보면, ‘On(원격연수원)’(229회), ‘Un(대학 부설 연수원)’(103회), ‘Mi(교육청)’(75회)의 빈도로 나타난다. 빈도가 높을수록 위세 중심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집합연수인 시도교육청 연수와 대학위탁기관의 연수보다 원격 연수원의 연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집합연수의 경우,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보다 대학에 위탁하여 진행되는 직무연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연수 프로그램을 연수 시간별로 살펴보면 ‘Hd(60시간)’(246회), ‘Hb(30시간)’(143회), ‘Hc(45시간)’(10회), ‘Ha(15시간)’(8회)의 빈도로 60시간의 연수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다. 제 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7)에 의하면 영재학급 담당교원의 임용 요건에서는 60시간 이상의 기초연수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재 직무연수에 있어서 60시간의 연수 프로그램 구성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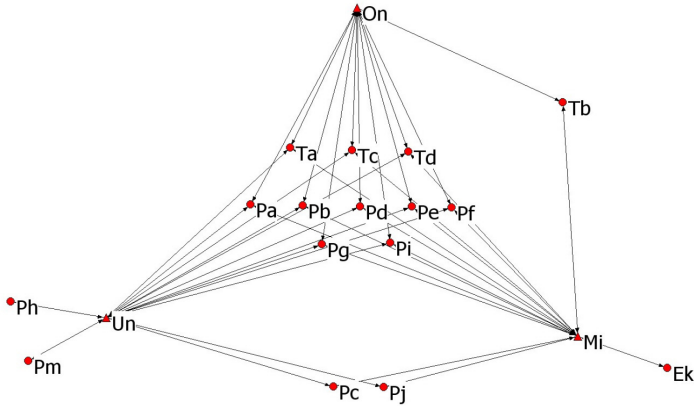
연수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빈도를 살펴보면, ‘Ge(공통과정)’(353회), ‘Ma(수학)’(28회), ‘Sc(과학)’(15회), ‘Ar(예술)’(5회), ‘Ko(언어)’(4회), ‘It(정보)’(2회)의 빈도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분야는 공통과정으로 많은 연수 프로그램이 공통과정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공통과정 다음으로는 수학과 과학의 연수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예술, 언어, 정보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연수가 적게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재교육 담당교사 자질의 하위 범주에 대한 사용 빈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문적 자질의 경우 ‘Pe(전공분야의 영재판별 방법 및 절차)’(66회), ‘Pa(영재의 발달특성 지식)’(61회), ‘Pf(영재 교육과정의 설계 및 개발능력)’(58회), ‘Pb(전공분야 영재프로그램에 관한 지식)’(48

회), 'Pd(영재의 생활지도와 진로지도)'(35회)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위세 중심성에 있어서도 'Pe(전공분야의 영재판별 방법 및 절차)'(23.025), 'Pa(영재의 발달특성 지식)'(22.414)로 빈도가 높을수록 위세 중심성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수 프로그램에서 많이 실시되는 전문적 자질로는 영재의 판별 및 특성과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식, 교육과정의 설계 및 개발 능력임을 알 수 있다. 교수능력 자질의 경우 'Ta(수업설계 능력 및 기술)'(45회), 'Td(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증진 수업 능력)'(27회)이며 각각의 위세중심성은 14.116과 8.882로 나타났다. 연수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교수능력 자질에는 수업설계 기술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업 능력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의적 자질의 경우 'Ek(대인관계 능력 및 상호작용 기술)'(2회)는 낮은 빈도와 0.663의 낮은 위세 중심성을 보였다. 이는 영재 교사가 지녀야 할 정의적 자질 중에서 대인관계 능력과 상호작용 기술과 관련된 자질만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정의적 자질에 관한 연수가 없음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지도를 구성하는 영재교육 담당교사 자질의 하위 범주에 대하여 기관별로 살펴보면[그림 2], 교육청과 대학부설 연수원 및 원격 연수원의 연수 프로그램에서 전문성 자질의 하위 범주 7개와 교수능력 자질 중 3개의 하위 범주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전문성 자질은 'Pa(영재의 발달특성 지식)', 'Pb(전공분야 영재프로그램 지식)', 'Pd(영재의 생활지도와 진로지도)', 'Pe(전공분야의 영재판별 방법 및 절차)', 'Pf(영재 교육과정의 설계 및 개발능력)', 'Pg(영재교육 평가능력)', 'Pi(영재교육 최근 동향 및 추이 이해)'였다. 이를 통해 3개의 기관에서 이뤄지는 연수 프로그램 중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전문성 자질이 영재의 판별 및 특성,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식, 교육과정의 설계 및 개발 능력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수능력 자질에서는 공통적으로 'Ta(수업설계 능력 및 기술)', 'Tc(영재특성 고려한 교육자원 활용능력)', 'Td(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증진 수업능력)'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수 프로그램에서 수업설계 기술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업 능력과 관련된 교수능력 자질을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교육청과 원격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교수능력 자질의 'Tb(교육공학적 수업방법 개발능력)'가 있었다. 그리고 교육청과 대학 부설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전문성 자질의 'Pc(영재교육법 및 정책)', 'Pj(영재교육분야 관련 정보 습득 방법)'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연수 기관과 다르게 대학 부설 연수원에서는 전문성 자질의 'Ph(전공영역 학문탐구방법)'과 'Pm(교사연수 정보)'과 관련된 연수를, 교육청에서는 정의적 자질인 'Ek(대인관계 능력 및 상호작용 기술)'와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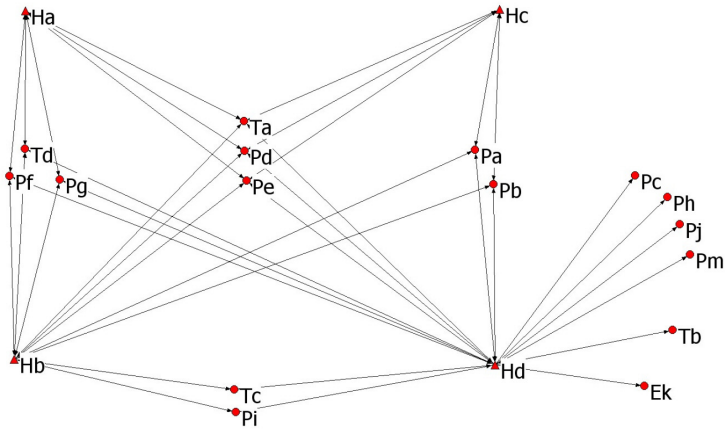


[그림 2] 연수 프로그램의 기관별 하위 범주 분류

영재교육 담당교사 자질의 하위 범주에 대하여 연수 시간별로 나타난 네트워크 지도를 보면[그림 3], 60시간 연수는 16개, 45시간 연수는 5개, 30시간 연수는 10개, 15시간 연수는 6개의 하위 범주가 나타났다. 연수 시간에 따라 다루고 있는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의 수가 다르며, 특히 45시간 연수에서 다루는 자질이 적은 이유는 분석한 연수 프로그램이 1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5시간에서 60시간에 이르는 모든 연수 프로그램에서 전문성 자질의 하위 범주 2개와 교수능력 자질의 하위 범주 1개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자질은 전문성 자질 중 빈도와 위세 중심성이 높게 나온 ‘Pd(영재의 생활지도와 진로지도)’, ‘Pe(전공분야의 영재관별 방법 및 절차)’와 교수능력 자질의 ‘Ta(수업설계 능력 및 기술)’이다. 이는 판별과 생활지도, 수업 설계 능력과 관련된 연수 프로그램이 연수 시간과 관계없이 15시간~60시간의 연수 프로그램에서 골고루 실시됨을 의미한다. 또한 30시간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전문성 자질 중 ‘Pa(영재의 발달특성 지식)’와 ‘Pb(전공분야 영재프로그램 지식)’와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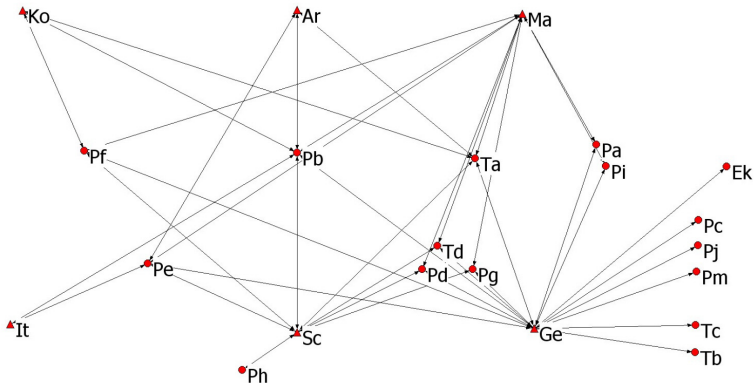
이에 반해, 60시간의 연수에서는 전문성 자질의 ‘Pc(영재교육법 및 정책)’, ‘Ph(전공영역 학문탐구방법)’, ‘Pj(영재교육분야 관련 정보 습득 방법)’, ‘Pm(교사연수 정보)’과 교수능력 자질의 ‘Tb(교육공학적 수업방법 개발능력)’, 정의적 자질의 ‘Ek(대인관계 능력 및 상호작용 기술)’와 관련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연수 시간이 적을수록 전문성 자질과 교수능력 자질에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이 한정되어 있으며, 연수 시간이 많은 연수 프로그램 일수록 더 많은 하위 범주의 영재교사의 자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3] 연수 프로그램의 시간별 하위 범주 분류

네트워크 지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그림 4] 공통과정, 수학, 과학, 언어, 정보, 예술의 6개 분야에서 전문성 자질의 하위 범주 ‘Pb(전공분야 영재프로그램 지식)’ 1개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야별 영재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서 전공분야의 프로그램 지식에 대해 연수를 실시함을 의미한다.

특히, 정의적 자질의 경우 1개의 하위 범주인 ‘Ek(대인관계 능력 및 상호작용 기술)’가 사용되었는데 네트워크 지도를 살펴보면, ‘Mi(교육청)’와 ‘Hd(60시간)’, ‘Ge(공통분야)’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교육청에서 실시되는 60시간의 공통과정 연수 프로그램에서 대인관계 능력 및 상호작용 기술이라는 정의적 자질과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연수 프로그램의 분야별 하위 범주 분류

분석 결과,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전체 36개의 하위 범주 가운데 총 16개의 하위 범주 유형이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전문성 자질의 13개 하위 범주 중 11개(84.6%), 교수능력 자질의 7개 하위 범주 중 4개(57.1%), 정의적 자질의 12개 하위 범주 중 1개(8.3%)가 사용되었으며, 인지적 자질의 하위 범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많은 연수 프로그램이 인지적·정의적 자질보다 전문성 자질과 교수능력 자질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영재교육 담당교사에게는 영재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지도하는 정의적 측면의 역할과 학생의 독특한 반응을 수용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조석희 외, 1996; 이신동 외, 2009). 그러므로 영재교육 담당교사에게 영재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수업 기술 등의 전문적·교수능력 자질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에게 요구되는 창의적인 특성 등의 인지적 자질과 학생을 이해하고 교육을 보는 관점 등의 정의적 자질이 요구된다.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에 관한 프레임 분석을 통해 많은 연수 프로그램에서 정의적 자질보다 판별과 영재의 특성, 영재프로그램에 관한 지식 등의 전문성 자질과 수업설계 기술 등의 교수능력 자질과 관련된 연수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수 프로그램 강의명에 대한 언어분석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영재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수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은 프레임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프레임 분석을 통하여 연수 프로그램이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인지적·정의적 자질보다 전문성·교수능력 자질을 강조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영재교육 담당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영재교육 담당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언어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연수 프로그램을 프레임에 맞춰 분류한 후 어떤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영재교육 담당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강의명들을 언어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개발과 관련된 내용의 강의를 많았다. 이는 연수 프로그램이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영재 판별도구 등 영재 수업과 학생 선발을 강조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수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영재 교사의 자질에 대한 프레임 분석 결과, 3개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전문성 자질 중 영재의 판별 및 특성,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식, 교육과정의 설계 및 개발 능력과 교수능력 자질 중 수업설계 기술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수 시간에 관계없이 판별과 생활지도, 수업 설계 능력과 관련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분야별 영재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서 전공분야의 프로그램 지식에 대해 연수를 실시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 중 전문성 및 교수 능력 자질과 관련된 내용이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과 시간, 분야별 교육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드러남을 의미한다.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영재교육 담당교사 자질에 관한 프레임 분석 결과, 전체 36개의 하위 범주 가운데 전문성 자질 11개, 교수능력 자질 4개, 정의적 자질 1개의 하위 범주가 사용되었으며 인지적 자질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에 있어 전문적인 능력 및 교수 능력과 더불어 정의적인 측면의 중요성에 비하여 영재교육 담당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있어 연수 프로그램들이 전문성과 교수 능력의 영역에 치우친 경향을 알 수 있다. 영재 담당교사의 자질은 전문적 자질 외에 영재교육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 전문적 자질, 인성적 자질이 있음에도(김홍원 외, 2000) 전문적 자질에만 치우쳐 있으므로 해당 교과에 대한 지적 우월성과 뛰어난 수업 기술 외에 영재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연수 프로그램에서 예술 및 언어 등의 교과 연수와 특수, 상담, 부모와 관련된 연수가 적으며 관련 내용이 충분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연수 프로그램이 한정된 분야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연수가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연수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직무연수의 과목을 다양하고 균형 있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연수 프로그램 강의명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분석이며 실제적인 연수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강의 원고, 강의 방법, 평가방법 등을 분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제 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 권치순, 이혜란(2012). 초등 영재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초등교육**, 23(3), 159-173.
- 김미숙, 이미경, 강병직, 김영아, 김인순, 박지은, 서예원 (2010). **한국의 영재교육: 영재교육 현황과 국가 표준 정립**. 수탁연구 CR2010-10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철, 김홍원, 최인수, 이윤옥, 이정규 (2005).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분야별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 김홍원, 박주상, 이윤식, 조석희 (2000). **영재교육 담당교원 양성 및 임용방안 연구**. 수탁연구 CR2000-1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경희, 서혜애 (2007). 영재교육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 탐색 연구. **영재교육연구**, 17(1), 77-98.
- 박성익, 조석희, 김홍원, 이지현, 윤여홍, 진석연, 한기순 (2003). **영재교육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소경희(2003). ‘교사 전문성’의 재개념화 방향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과정연구**, 21(4),

77-96.

- 이신동, 이정규, 박춘성 (2009). **최신 영재교육학 개론**. 서울: 학지사.
- 이윤옥, 김현철, 이정규 (2007).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질 및 교수능력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연구**, 16(3), 221-233.
- 장영숙, 강경석 (1999).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개발에 관한 연구. **영재교육연구**, 9(2), 1-22.
- 정우현 (1977). **현대교사론**. 현대교육전서 1권, 서울: 배영사.
- 조석희, 박경숙, 김홍원, 김명숙, 윤지숙 (1996).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사용 연수자료 (CR96-2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Baldwin, A. Y. (2008).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소외된 영재학생** [성희진, 전미란, 역]. 서울: 학지사. (원본출간년도: 2004).
- Chan & David, W. (2001). Characteristics and Competencies of Teachers of Gifted Learners. *The Hong Kong Teacher Perspective*, 23(4), 197-202.
- Croft, L. J. (2003). *Teachers of the gifted: Gifted teachers*. In N. Colangelo & G.A. Davis(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Boston: Allyn & Bacon.
- Feldhusen, J. F., & Hoover, S. M. (1986). A conception of giftedness: Intelligence, self concept and motivation. *Roeper Review*, 8(3), 140-143.
- Landrum, M. S., Callahan, C. M., & Shaklee, B. D. (2001). *Aiming for excellence: Annotations to the NAGC pre-K-grade 12 gifted program standards*. Waco, Texas: Prufrock Press, Inc.
- Silverman, L. K. (1993). *Counselling the gifted and Talented*. New York: Love Publishing Company.



= Abstract =

## An Analysis of Teacher Training Programs focusing on the Reflect Qualities of teachers in Gifted Education

**Kyu-Seong Cho**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uk-Ho Chu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yeong-Jin Par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ee-Jin Ki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eon-Ok Par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eacher training programs focusing on reflect qualities of teachers in gifted education. A total of 20 teacher training programs were collected from the office of education, the teacher training center of university and the remote training center. These teacher training programs were analyzed using a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curriculum', 'teaching and learning' and 'development of curriculum' were emphasized in teacher training programs. Therefore, teacher training programs are operated with an emphasis on teacher's professional qualities. The analysis also revealed that many of the teacher training programs were dealt with professional and teaching faculty's qualities more than affective qua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teacher training programs to be diversified and balanced. Furthermore, in order to improve teacher's quality equally, we suggest a systematic training program should be put in place.

**Key Words:** Training program, Teacher's quality, Semantic network analysis

1차 원고접수: 2014년 7월 16일
수정원고접수: 2014년 8월 10일
최종게재결정: 2014년 8월 10일